Ewha Global Excellence Program

미술사학과×사학과 융합연구단

「텍스트와 이미지의 융합
: 미디어 전환 시대 인문학의 새로운 지평」

미술사학과 학술연구사업 4차 보고서

워크숍: 박물관은 무엇을 수집해야 하는가?

강연: 동시대 수집과 어려운 유산
(부니아, 그리스 에게해대학교 박물관 교수)

2026. 06. 14.

책임 교원: 장남원 교수

워크숍 보고서

워크숍 주제	박물관은 무엇을 수집해야 하는가?
지도 교수	장남원 교수
일정	2026.05.27.~2026.05.28.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공용 연구실 B342 및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참여자	우진영(241HAG05), 유주연(261HAG01)
활동 내용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투어 (5월 28일, 13:00 – 15:00) 장남원 교수의 인솔 하에 부니아 교수와 함께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전시 투어를 진행하였다. 투어는 담인복식미술관 특별전《포袍, 예를 갖추다》, 기증전《아름다움을 전하다》, 상설전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품전, 이화 창립 140주년 기념 특별전《眞, 善, 美, 이화 140년 : 기억에서 미래로》 순으로 이루어졌다. 담인복식미술관 특별전에서는 조선시대 포(袍)의 의례적 의미와 복식문화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어 기증전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의 소장품 형성에 기여한 기증 문화와 문화예술 후원의 의미를 확인하였다. 상설전에서는 조선시대 회화, 서예, 기록화 등 주요 소장품을 중심으로 박물관의 수집 방향과 전통미술 자료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화 창립 140주년 기념 특별전에서는 학교사 자료와 문화유산을 통해 이화의 역사와 교육 이념을 확인하였다. 이번 투어를 통해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의 소장품 구성과 전시 방향을 파악하고, 기증·수집·전시가 박물관의 역사와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과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참고 문헌	**리아넌 메이슨·앨리스터 로빈슨·엠마 코필드, 『박물관학』(2020)** 현대 박물관학의 주요 이론과 쟁점을 다룬 입문서로,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 수집과 전시의 의미, 관람객 참여, 윤리, 문화정책 등을 폭넓게 설명한다. 특히 박물관이 사회적 기억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공공기관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현경, 「'불편문화유산(difficult heritage)'의 개념 및 역할에 대한 고찰」, 『도시연구: 역사·사회·문화』 20, 2018.** '불편문화유산(difficult heritage)'의 개념과 주요 쟁점을 소개하고, 문화유산이 현재 사회의 기억과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고찰하였다. 특히 문화유산이 기억 분쟁(memory conflicts)과 문화유산화(heritagization)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는 점을 설명하며,

	상처와 갈등의 역사를 담은 문화유산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대화와 성찰의 장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부니아 교수의 특강에서 논의된 기억, 재현, 공동체 참여, 어려운 유산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참고하였다.
자체 평가	장남원 교수의 지도하에 워크숍은 총 4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2명의 팀원이 참여하였다. 1차와 2차 워크숍은 팀원 간 대면 토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박물관 유물과 전시를 둘러싼 주요 문제의식을 공유하였다. 이후 강의를 통해 박물관의 수집, 전시, 해석 방식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3차 워크숍은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투어로 진행되었으며, 4차 워크숍에서는 앞선 활동 내용을 정리하고 보고서 방향을 점검하였다. 3차 박물관 투어는 전시 관람에 앞서 그리스 박물관의 전시 구성과 전시실 배치 방식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과 담인복식미술관의 전시를 함께 관람하며, 한국 대학박물관의 소장품 구성, 전시 연출, 관람 동선, 유물 해석 방식을 살펴보았다. 특히 담인복식미술관 특별전《포袍, 예를 갖추다》, 기증전《아름다움을 전하다》, 상설전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품전, 이화 창립 140주년 기념 특별전《眞, 善, 美, 이화 140년 : 기억에서 미래로》를 순차적으로 관람하였다. 부니아 교수는 복식 자료, 근대 자료, 디지털 전시 방식, 전시 연출에 큰 관심을 보였다. 담인복식미술관 특별전에서는 포袍를 통해 조선시대 예禮와 복식문화가 시각화되는 방식에 주목하였고, 이화 창립 140주년 기념 특별전에서는 학교사 자료와 문화유산을 함께 제시하는 방식에 관심을 보였다. 또한 유물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맥락과 기관의 정체성 속에서 보여주는 전시 방식이 인상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박물관 전시가 유물의 보존과 공개를 넘어 기관의 역사, 교육 이념, 문화적 정체성을 전달하는 매개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해외 연구자의 시각에서 한국 대학박물관의 전시를 바라보며, 복식·근대 자료·디지털 매체 등 다양한 전시 요소가 관람자의 이해와 관심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다.

부록1. 워크숍 증빙 자료

지도 교수	장남원 교수
참여자	우진영(241HAG05), 유주연(261HAG01)

1) 발제문: 이화 창립 140주년 기념 특별전 《眞·善·美, 이화 140년: 기억에서 미래로》와 대학박물관의 기억 재현

알렉산드라 부니아 교수의 특강 “Contemporary Collecting and Difficult Heritage”는 박물관이 동시대의 기억과 경험을 어떻게 수집하고 재현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다. 특강에서는 박물관이 단순히 유물을 보존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회적 기억을 기록하고 구성하는 기관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특히 현대의 박물관은 개인적·감정적 의미를 지닌 자료, 사회적 갈등과 트라우마를 담은 자료, 아직 가치가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동시대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고 전시할 것인가라는 윤리적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화여자대학교 창립 140주년 기념 특별전 《眞·善·美, 이화 140년: 기억에서 미래로》는 대학박물관이 기관의 역사와 공동체의 기억을 어떻게 수집·선별·전시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사례이다.

이번 전시는 이화여자대학교 창립 140주년을 기념하여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이 이화역사관과 협력하여 마련한 전시이다. 박물관 2층 기획전시관에서 2026년 5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최되며, 학교사 자료와 주요 문화유산을 함께 공개한다. 전시에는 국보와 보물을 포함하여 총 280여 점의 유물이 출품되었다. 이는 단순히 학교의 연혁을 소개하는 전시가 아니라, 이화가 축적해 온 역사와 교육 이념, 문화적 성과를 유물과 기록 자료를 통해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전시라고 할 수 있다.

전시는 크게 ‘이화’와 ‘진선미’ 두 개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이화’ 섹션에서는 이화학당에서 이화여자대학교로 이어지는 140년의 역사와 이화인의 활동을 소개한다. 제6대 앨리스 아펜젤러 교장이 사용하던 책상, 이화학당 시기에 사용한 수업 종, 졸업증서, 단체복, 체육복, 메이퀸 관 등은 학교의 역사를 구체적인 사물과 연결하여 보여준다. 이러한 자료들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이화라는 공동체가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고 기억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물질적 증거로 기능한다.

‘진선미’ 섹션은 이화의 교육 이념을 세 갈래로 나누어 제시한다. ‘진(眞)’ 공간에서는 주요 기록문화유산을 통해 진리에 대한 탐구의 가치를 보여주고, ‘선(善)’ 공간에서는 후원자들이 기증한 유물을 통해 나눔과 헌신의 의미를 조명한다. ‘미(美)’ 공간에서는 여성 고고학자의 초기 발굴 현장 참여, 조사·연구 활동, 1972년 이후 본격화된 특별전과 출판 활동 등을 통해 이화의 문화적 전통과 성과를 소

개한다. 주요 전시품으로는 국보《백자철화 포도문호》, 보물《상호도감의궤 하권》,《고구려 평양성 축성기록글자》,《기사계첩》,《백자청화 매조죽문호》, 명성황후 친필편지 등이 포함되었다.

특강의 내용과 연결하여 볼 때, 이 전시는 박물관이 기억을 단순히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고 구성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부니아 교수는 현대 박물관이 정치적·사회적 의미를 지닌 기억을 다룰 때, 수집과 전시의 윤리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眞·善·美, 이화 140년: 기억에서 미래로》 역시 이화의 140년 역사 가운데 특정한 자료와 사건, 인물, 가치를 선별하여 하나의 전시 서사로 구성하고 있다. 즉 이 전시는 이화가 스스로를 어떻게 기억하고, 그 기억을 미래 세대에게 어떻게 전달하고자 하는지를 보여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전시에서 주목할 점은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시 방식이다. 전시는 AI를 활용해 복원된 인물과 음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이화 140년의 역사를 영상 콘텐츠로 제시하였다. 또한 관람객이 옛 교복, 70주년 기념 한복, 메이퀸 관, 개정 학위복을 착용한 모습을 이미지로 제작해 소장할 수 있는 AI 기반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는 과거의 자료를 현재의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특강에서 논의된 것처럼, 기술은 기억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힘을 가지는 동시에 기억을 재구성하고 특정한 방식으로 경험하게 만드는 힘도 가진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억의 재현은 관람객의 몰입을 높이는 장점과 함께, 어떤 기억을 어떤 방식으로 재현할 것인가에 대한 윤리적 고민을 동반해야 한다.

한편 이 전시는 대학의 창립 기념전이라는 성격상 이화의 성취와 교육적 가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기념전으로서 자연스러운 방향이지만, 특강에서 다루어진 'difficult heritage'와 'inclusive representation'의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더 확장될 수 있는 지점도 있다. 예를 들어 대학의 역사 속에는 성취와 발전뿐 아니라 시대적 제약, 여성교육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공동체 내부의 다양한 경험도 함께 존재한다. 향후 대학박물관의 전시는 이러한 복합적인 기억까지 포괄함으로써, 기관의 역사를 더욱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眞·善·美, 이화 140년: 기억에서 미래로》는 대학박물관이 학교의 역사와 정체성을 어떻게 수집하고 전시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이 전시는 학교사 자료와 문화유산, 기증품, 디지털 콘텐츠를 함께 활용하여 이화의 140년을 하나의 기억 서사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박물관은 단순히 유물을 보존하는 공간을 넘어, 기관의 기억을 재현하고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참고 문헌

단행본

리아넌 메이슨·앨리스터 로빈슨·엠마 코필드, 오영찬 역, 『박물관학』,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20.

이난영, 『박물관학: 박물관 관리 운영의 이론과 실무』, 서울: 삼화출판사, 2008.

논문

서희정, 이재규, 「기념공간에서의 집단기억 특성과 공간연출요소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12,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17.

이현경, 「'불편문화유산(difficult heritage)'의 개념 및 역할에 대한 고찰」, 『도시연구: 역사·사회·문화』 20, 도시사학회, 2018.

장진희, 「대화의 장으로서 기념박물관 역할과 시민참여적 공공기억 형성」, 『역사문화연구』 89,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24.

3) 워크숍 증빙 사진

2026년 5월 28일 : 오프라인 워크숍





사진 1 장남원 교수, 부니아 교수와 워크숍 참석자들의 박물관 미팅 전경



사진 2 장남원 교수의 인솔하에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전시 투어 전경

강연 보고서

초청 강사	그리스 에게해대학교(University of the Aegean) 박물관학 교수 알렉산드라 부니아(Alexandra Bounia)		
강연 제목	동시대의 박물관 컬렉팅, 그리고 불편한 유산		
일시 및 장소	2026년 5월 27일(수)	장소	학관 108호
참석인원	25인		
강연 내용	1. 박물관의 역할 변화와 현대 수집의 등장 21세기에 들어 박물관은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점차 확대해 왔으며, 갈등과 기억, 정체성, 트라우마, 회복 등 동시대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다루는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최근 국제박물관협의회(ICOM)의 박물관 정의에서도 접근성, 지속가능성, 윤리, 공동체 참여 등이 핵심 가치로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박물관이 과거의 유산을 보존하는 기능을 넘어 현재의 경험을 기록하고 미래의 기억을 형성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2. 불편한 유산(Difficult Heritage)과 박물관의 책임 ‘불편한 유산(difficult heritage)’은 사회가 기억하기 고통스럽거나 수치스럽고, 때로는 분열적이라고 느끼는 역사적 경험을 의미한다. 전쟁, 집단학살, 노예제, 식민주의, 독재, 테러리즘, 강제이주, 정치적 폭력, 인종차별, 구조적 억압 등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박물관 및 미술관은 이러한 역사를 어떻게 수집하고 보존하며 해석하고 전시할 것인가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지닌다. 고통의 경험을 전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당사자를 대상화하지 않도록 세심한 고려가 요구된다. 3. 동시대 수집(contemporary collecting)의 특징과 공적 기억의 형성 과거의 수집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역사적 가치가 확정된 대상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동시대 수집은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 자체를 기록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회화나 고고학 유물뿐 아니라 난민의 소지품, 시위 현수막, 구술 기록, SNS 자료, 법과학적 증거, 파괴된 건축물의 흔적, 환경 파괴의 증거 등 동시대 사회를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들이 수집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수집은 단순히 물건을 확보하는 행위가 아니라 공적 기억(public memory)을 형성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실천으로 이해될 수 있다. 사회적 갈등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무엇을 기록하고 무엇을 기억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과정 자체가 공동체의 기억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4. 난민 위기 사례와 돌봄의 윤리 전쟁과 강제이주를 경험한 난민들은 극심한 트라우마와 불안 속에서 생존을 우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따라서 박물관(미술관)은 유물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집 과정 전반에서 당사자의 경험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돌봄의 윤리(ethics of care)'를 실천해야 한다. 난민 개인의 고통을 직접 수집하는 방식 대신, 난민을 지원한 지역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의 경험을 함께 기록하는 사례는 공동체의 환대와 연대의 가치를 보존하는 새로운 수집 방식으로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 박물관은 사회적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는 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5. 결론 동시대의 현대 박물관(미술관)은 전쟁, 난민 위기, 팬데믹과 같은 현재 진행형의 사회 문제 속에서 무엇을 수집할 것인가, 누구의 목소리를 담을 것인가, 어떠한 방식으로 기억을 재현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동시대의 수집은 단순한 물건의 축적이 아니라 동시대의 경험과 감정을 미래 세대를 위해 기록하는 기억의 실천이자 윤리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박물관(미술관)은 과거를 보존하는 기관을 넘어 공동체의 기억을 형성하고 사회적 회복을 돕는 공공적 행위자로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참고문헌 Malene Vest Hansen and Kristian Handberg, eds, "Curating the Contemporary in the Art Museum," London: Routledge, 2024. John Byrne, et al. eds, "The Constituent Museum. Constellations of Knowledge, Politics and Mediation," Amsterdam: Valiz, 2018.
질의 및 답변	Q. 국립미술관은 엄격하고 보수적인 수집 지침을 따르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작품은 제외하곤 합니다. 이로 인해 제한적인 서사만 재생산하게 되는데, 제도적 책임과 민감한 역사를 다루는 필요성 사이의 긴장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A. 국립미술관은 그 특성상 정치적 결정과 권력자의 성향에 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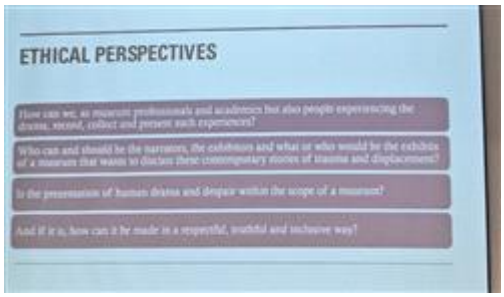
	른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때때로 정치적 결정들이 박물관 미술관이 할 수 있는 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술관 종사자, 큐레이터, 연구원들에게는 '포용적(inclusive)' 재현을 위한 돌봄과 책임'이 있습니다. 완벽한 정답은 없더라도, 사려 깊은 행동,책임 있는 자세를 통해 다양한 매개변수를 고려하고 필요한 서사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Q. 1960년대 발굴품이나 지방정부의 미래 유산 프로젝트 유물처럼 아직 가치가 미정인 대상들을 다룰 때, 박물관 전문가는 어떤 책임을 가져야 할까요? 등록과 기록화의 과정은 사물을 유산(heritage)으로, 혹은 공적 기억(public memory)의 대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에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A. 핵심은 '컬렉션 관리와 기록(문서화) 방식'에 있습니다. 과거 아카이브에서 여성이 지워졌듯, 기록이 부실하면 특정 역사에 대해 침묵하게 되고 지워집니다. 지금 당장 가치가 모호하더라도 '미래에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AI 등의 기술을 활용해 이야기와 연결성을 더 풍부하게 구축할 수 있으므로, 윤리적인 기록 축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체 평가	미술사학도로서 현장에 나가면 여러 실무를 경험하지만 가장 중요한 업무는 소장품 수집 및 관리 분야이다. 또한 미술관 및 박물관은 점차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기에 각 개별 기관마다 소장품의 종류와 수집 방식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이번 부니아 교수의 강의는 이런 박물관 및 미술계의 최신 흐름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강연이었다. 강연은 이처럼 동시대의 수집의 개념과 어려운 유산의 정의, 실제 사례 연구의 순으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적인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였다. 추상적인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최근 중동 지역의 전쟁 경험과 난민 위기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함으로써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으며, 박물관 현장에서 실제로 마주하게 되는 윤리적 고민을 또한 전달하였다. 강연자인 부니아 교수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통해 이론적 개념을 구체화함으로써 학생들의 몰입도를 높였으며, 미술사학 전공 학생들이 박물관 및 미술관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실천적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강연의 내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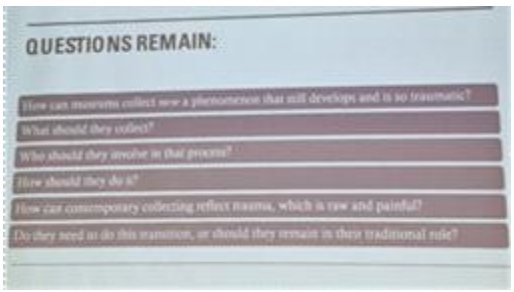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ppt 화면에 키워드를 띄우는 등 전달 방식이 명확하여 학생들이 쉽게 공감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 학생들은 이번 강연을 통해 미술사학의 연구 대상과 방법론이 동시대 사회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만족감을 나타냈다. 특히 기존에 미술사학을 과거의 미술작품과 양식 연구 중심으로 이해해 왔던 학생들에게는 박물관이 사회적 갈등과 트라우마, 공동체의 기억을 기록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신선한 자극으로 작용하였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유산의 형성과정, 등록과 기록의 의미, 미술관 전문직의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심도 있는 질문이 이어졌으며, 학생들은 강연 내용을 자신의 전공적 관심과 연결하여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강연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비판적 사고와 학문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교육적 효과를 거두었음을 보여준다. 이번 강연은 워크숍에서 다루고자 했던 주제와 높은 수준의 연계성을 보였다. 미술사학과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박물관 및 미술관 실무, 문화유산의 가치 형성, 기록과 등록의 과정, 전시와 해석의 문제, 박물관 전문직의 역할과 윤리 등을 폭넓게 다루었으며, 이를 실제 사례와 연결하여 설명함으로써 워크숍의 목적을 충분히 충족시켰다. 특히 “무엇이 유산이 되는가”, “박물관은 어떠한 기억을 선택하여 기록하는가”, “기록과 등록은 유산 형성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와 같은 질문은 미술사학의 전통적인 연구 방법과 현대 미술관 및 박물관학의 실천적 접근을 연결하는 중요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강연 구성은 학생들로 하여금 향후 진로와 연구 방향에 대해서도 폭넓게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앞으로의 특강에서는 소규모 그룹 토론이나 사례 분석 활동을 병행하여 학생들이 직접 기록과 수집의 윤리적 문제를 검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확대한다면 참여도와 교육적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부록2. 강연 증빙 자료

초청 강사	에게해 대학교 알렉산드라 부니아 교수
강연 제목	동시대의 박물관 컬렉팅, 그리고 불편한 유산

1. 강연록 / 발표자료





2. 강연 증빙 사진 (특강 포스터 / 특강 현장)





3. 강연 참석자 명부

-